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2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홍걸 · 박영순  
강준현 · 인재근 · 김성주  
진성준 · 이소영 · 민형배  
장경태 · 민병덕 · 이용빈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차임(月借賃)의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또한,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.

실제,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%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.65%에 비해 너무 높고,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%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

낮추려는 것임(안 제95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“100분의 10”을 “100분의 20”으로, “100분의 12”를 “100분의 24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)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87조제2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항·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)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<u>100분의 10</u> 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	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</u> <u>분의 20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<u>10</u> <u>0분의 12]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-----<u>10</u> <u>0분의 24</u>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